

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,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 주재

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.16일 (월)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·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「확대간부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,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하였다.

특히,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,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하였고,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,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하였다.

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경찬 (044-215-2510)
		담당자	서기관	김형은 (wlhot32@korea.kr)